



2022. 8. 30 (화)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 영향 점검

오늘의 차트

차가워지는 가을바람, 다가오는 배당의 계절

칼럼의 재해석

포스트 코로나와 여행자보험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글로벌 투자전략 - 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 영향력 점검

- ✓ New York Fed 연구에서 공급측 물가 압력이 작년까지 인플레의 40% 설명한다고 분석
- ✓ 최근 공급망 지표는 COVID 이전 수준까지 정상화 시사. 인플레 추세 안정화 근거 중 하나
- ✓ 인플레 정점 통과 지연-긴축 가속에 따른 주가 하방 압력 확대 반복될 가능성 낮다는 견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 기대 관리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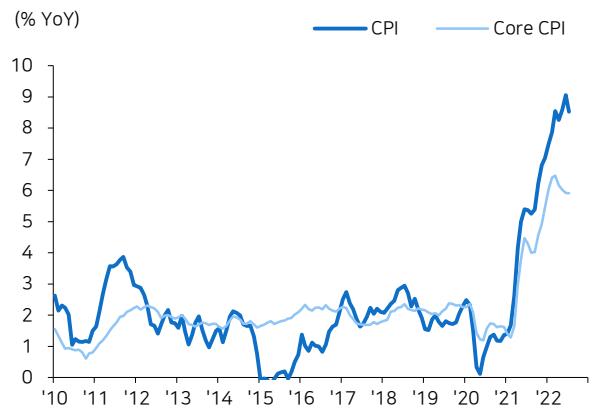
통화정책 관련 이벤트를 소화할수록 '물가지표'의 중요성은 커짐

잭슨홀 미팅의 파월의장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연설에 임했다. 7월 FOMC에서 언급한 pivot 가능성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선호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되살아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이런 흐름이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시장의 기대심리를 잠재우는데 주력했다.

Data dependent 강조 지속
인플레 '지표' 중요성 커지는 중

연준의 이러한 대응 이유는 현재 물가의 방향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연준 조차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data dependent)'는 입장을 고수하게 만든다. 명확해지는 것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방향성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반복되는 인플레 정점 통과 기대에 대한 실망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물가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유보하고 보수적인 대응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림1 연준, 아직 물가안정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파월 잭슨홀 연설은 기대 인플레 관리 목적 내포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인플레이션의 수요-공급 요인과 기여도 분해

최근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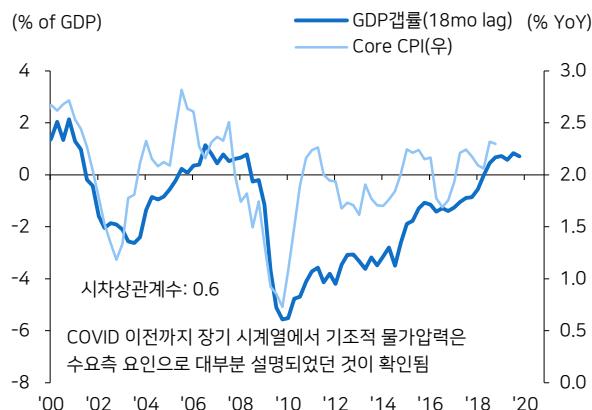
- 1) 수요측 요인
- 2) 공급측 요인
- 3) 전쟁이 유발한 가격 압력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의 고민은, 강한 수요측 압력과 공급측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물가 압력을 키웠다는 점이다. COVID 이후 여러 물가압력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 주요 재정정책으로 대변되는 정책효과는 수요측 물가압력을 키웠고, 2) 공급망 차질이 공급측 물가 압력으로 나타났으며, 3)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식량 원자재 가격 압력으로 이어져 공급측 압력을 함께 자극했다.

NY Fed의 Giovanni(2022)에서 최근 미국 수요/공급 물가압력 기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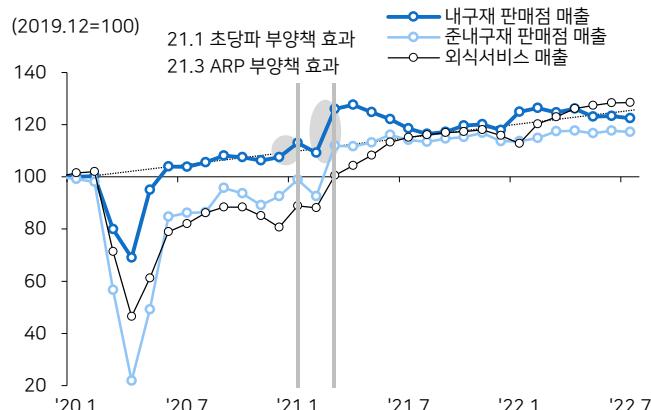
이번 전략공감에서는 이중 공급측 압력이 완화되는 효과와 시점에 대해 분석한다. Newyork Fed의 Julian di Giovanni는 8월 24일 NY Fed Liberty Street Economics 블로그에 본인이 6월에 발표한 논문을 기반으로 'How Much Did Supply Constraints Boost U.S. Inflation?'이라는 분석 내용을 개재했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측 물가압력이 완화될 때 영향력을 가늠해보고, 이후 물가 지표 방향성 판단에 참고하고자 한다.

그림3 2019년까지 기조적 물가 압력은 대부분 수요로 설명



주: GDP 갭은 실제 GDP(총수요)와 잠재 GDP(총공급)의 차. (+)이면 초과수요
자료: US BLS, CBO,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소매판매: 수요측 압력 키운 데는 재정정책 역할 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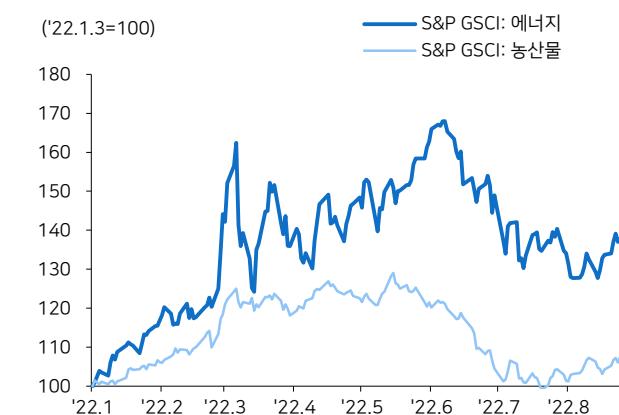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20-'21년 공급망 충격: COVID 충격 이후 추세 회복



자료: CPB,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22년 전쟁이 유발한 에너지/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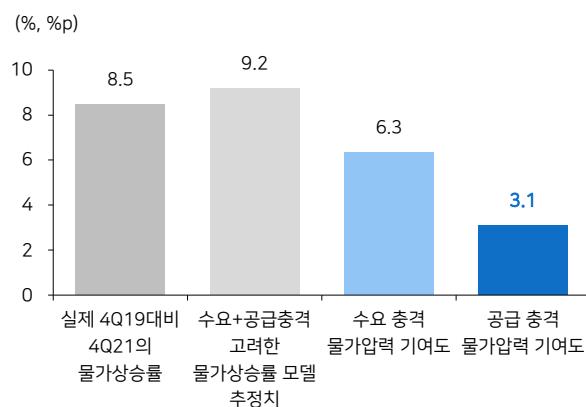
COVID 이후 공급망 충격이 유발한 공급측 압력 분석 목적하고자 4Q19 대비 4Q21 분석

해당 기간 동안 공급측 물가 압력 전체 인플레이션의 40% 설명

Giovanni(2022)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4Q19와 4Q21 사이 물가상승률 변화에 대해 연구했다. 수요측 물가 압력과 공급측 물가압력을 분해하기 위한 물가상승률 모델을 통해 추정치를 도출했다.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4Q19대비 4Q21 미국 CPI 상승률이 9.2%로 추정되었다. 동기간 실제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8.5%로 논문에서는 추정치가 실제치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미국과 유럽의 수요/공급 충격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그림 7, 8>과 같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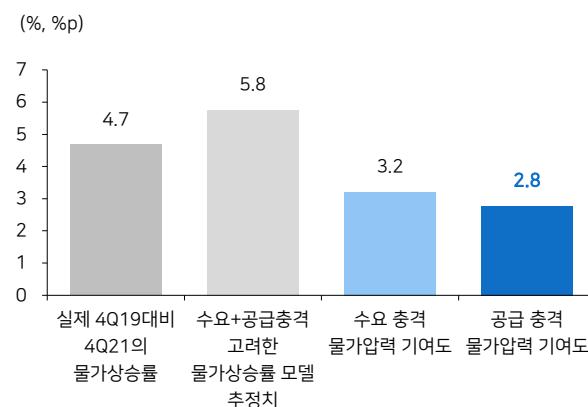
4Q19–4Q21 미국의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6.3%p, 유럽은 3.2%p로 추정되었다. 동기간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의 경우 미국은 3.1%p, 유럽은 2.8%p로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미국이 유독 해당 기간 수요측 압력이 강했던 이유는 유럽과 차별화되는 규모의 재정 부양책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급측 물가 압력 크기가 두 지역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COVID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이 공히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우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의 약 40%를 공급측 물가압력이 설명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림7 Giovanni(2022) 수요/공급 인플레 기여도 분해: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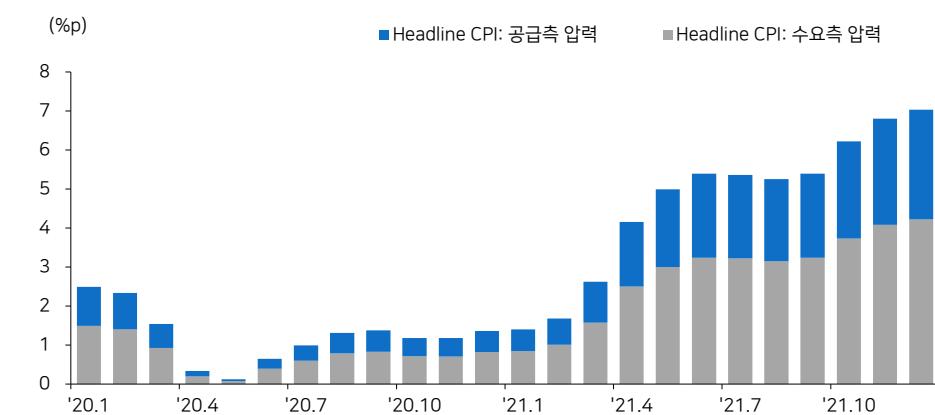
자료: 'Global Supply Chain Pressures, International Trade, and Inflation', Giovanni 외(2022),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Giovanni(2022) 수요/공급 인플레 기여도 분해: 유럽



자료: 'Global Supply Chain Pressures, International Trade, and Inflation', Giovanni 외(2022),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미국: 수요/공급 물가 기여도가 월간 CPI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남 가정, 기여도 추산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주: Giovanni(2022)에 따라 수요측 압력 60%, 공급측 압력 40% 가정

공급망 물가 압력 완화 징후 다수 포착, COVID 이전 정상 수준에 근접 중

21년 말 이후 공급망 충격은
정점 통과해 완화 지속.
7월은 정점대비 절반 수준

New York Fed의 글로벌 공급 압력 지수(GSCPI)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압력 강도는 2021년 12월 정점(4.32) 이후 올해에는 점차 완화되어 7월에는 정점으로부터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우려가 확산 중이지만 GSCPI 산출에 집계되는 세부지표들에서도 완화 추세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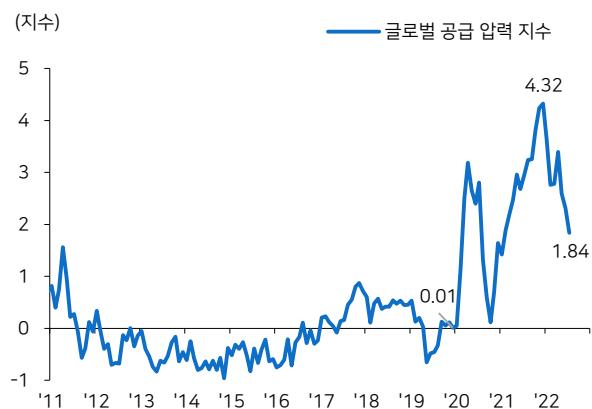
ISM 제조업지수는 평년 수준 회귀
컨테이너, 벌크선 운임지수도
작년말-올해초 정점 통과 후 하락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공급자 배송시간 지수는 지난 7월에 55.2를 기록했다. 과거 사례에서 60을 넘으면 압력이 심화된 기준으로 보았는데, 6월부터 평년 수준으로 다시 회귀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운임 지수도 각각 올해 2월과 작년 10월을 고점으로 추세 하락이 진행 중이다.

노동시장 쇼티지도 완화. COVID
이전 수준 취업자수 회복, 주당
근로시간도 평년수준으로 돌아옴

노동시장에서도 공급망 완화 시그널이 포착된다. COVID 이후 노동력 부족이 병목 현상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더뎌 근로시간이 이례적으로 상승했었다. 그런데 미국 7월 고용동향에 집계된 비농업 취업자수는 COVID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주간 근로시간도 평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그림10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정점은 '2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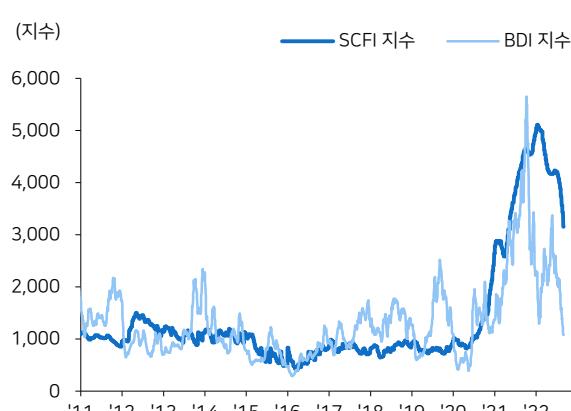
자료: New York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ISM 공급자 배송시간지수 60 이하 평년 수준 진입



자료: US IS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글로벌 운임지수 하락 지속



공급측 요인 완화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근거 중 하나

2022년 이후 물가 압력은 수요측, 공급측, 전쟁 유발 요인으로 나눠 분석

수요측 압력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전쟁 위험 더 확산되지 않으면
공급측 압력 완화 추세만으로도
인플레 정점 통과 기대 유효

<그림 14>에서는 COVID 이후 작용한 물가 압력을 1) 수요측 요인, 2) 공급측 요인, 3) 전쟁이 유발한 압력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1)과 2)는 Giovanni(2022)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산해본 <그림 9>를 기반으로 했다. 수요측 물가 압력은 수요 둔화에도 올해 연초 이후 유지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했고, 공급측 압력은 공급망 압력 지수에 따라 작년말-올해초 정점 이후 선형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3)은 1)과 2)로 설명되는 부분 이외의 추가 인플레 압력을 가정했다.

공급측 물가 압력이 연초 정점을 지나 선형으로 감소하여 올해 7월까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본다면, 7월 CPI에서 1.4%p를 공급측 압력이 설명한다. 연말까지 수요측 물가 압력이 일정하다(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는 보수적 가정을 유지하고, 전쟁이 유발한 물가 압력이 더 확산되지 않는다면, 공급측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추세만 이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는 유효하다고 본다.

그림14 수요측 압력과 전쟁 유발 물가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해도 물가 정점 통과 기대 가능



주: 2022년 이후 수요측 압력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Giovanni(2022)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한 물가압력 이외의 부분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수요측 물가 압력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견해와 전망의 리스크

수요측 인플레 압력은 향후 하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음

향후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하방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1) 경기둔화와 2) 부양책 효과 부재 때문이다. 특히 작년에 수요측 물가압력이 강했던 배경에는 연초에 통과된 대규모 재정부양책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했다고 본다. 여기에 완화적 통화정책까지 수요측 물가압력에 일부분 작용했다. 반면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다. 재정 부양은 연초에 상당부분 종료되었고, 제로금리도 시대도 끝났다.

전망의 불확실성은 전쟁이 유발한 에너지/식량 물가 압력

전망의 불확실성은 전쟁이 유발한 물가 압력이다. 예측이 어려운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의 방향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쟁 확산 또는 OPEC+ 감산 압력이 심화되거나 천연가스 문제가 확대되면 물가 압력은 가중된다. 반면, 하반기 중 정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여기에서 비롯된 압력은 예상보다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 정점 통과 이어진다면 긴축 속도 가속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

인플레이션 궤적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전망 지지

뉴욕 연은의 분석을 토대로 최근 물가상승 압력을 분해하여 향후 인플레이션 추세를 점검했다. 이번 분석은 당사 이코노미스트의 인플레이션 궤적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전망을 지지한다. 잭슨홀 컨퍼런스 파월 의장 연설 이후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연준의 입장은 더욱 강화된 상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지표의 방향이 통화정책과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통화긴축 가속 우려가 주가 낙폭
확대시키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
은 낮다는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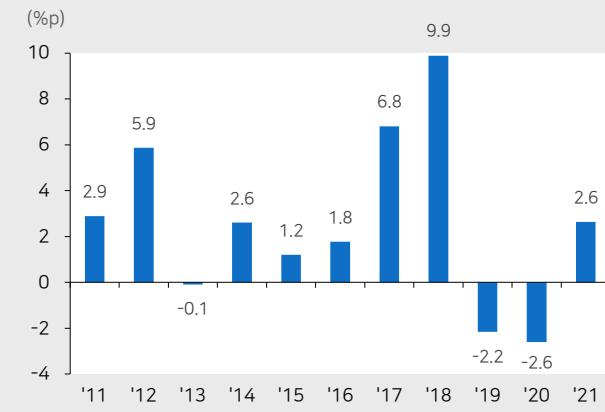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이번 분석을 토대로 물가 정점이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잭슨홀 회의 이후 주가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처럼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지연-긴축 속도 가속 우려 재확산-주가 낙폭을 확대시키던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오늘의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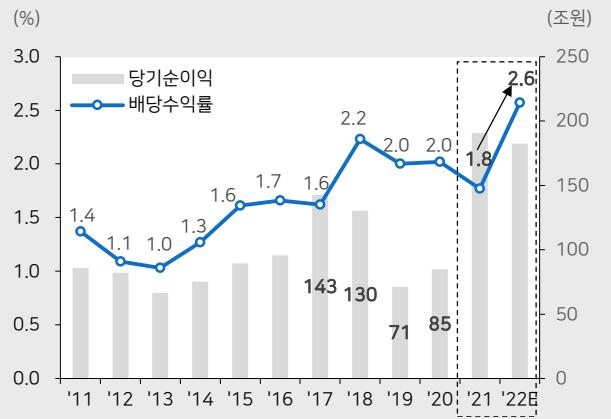
최병욱 연구원

차가워지는 가을바람, 다가오는 배당의 계절

<4분기 고배당지수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_2011년 이후>



<코스피 당기순이익 및 배당수익률_2011년 이후>



주: 고배당주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TR)을 활용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긴축에 대한 우려 재차 반영

6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는 하락폭을 일부 회복했으나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긴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증시는 이에 대한 불안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배당주는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아웃 퍼폼하고 있다. 연초 이후로 보면, 코스피 대비 7.9%p 초과수익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추이가 지속될지 고배당주 투자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고배당주,
4분기에 코스피 아웃퍼폼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 4분기에 고배당주는 대체적으로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을 보였다는 점이다. 2011년 이후 코스피 고배당주 지수는 11번 중 8번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평균적으로 2.6%p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1, 2, 3분기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배당기준일인 12월이 가까워지는 4분기에 주가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당주에 대한 매력
이익 레벨에 따라 차별화

그렇다면 '19년, '20년에는 왜 고배당주가 코스피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코스피 당기순이익에서 찾을 수 있다. '19년, '20년은 '17년 급격한 순이익의 상승(143조원) 이후 다시 절반 가까이(71조원) 하락한 해다. 배당은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개념으로, 순이익 감소 우려가 배당주 매력을 하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17년, 이익레벨이 유지된 '18년은 각각 6.8%p, 9.9%p로 다른 연도보다도 고배당주의 초과수익률이 높았다.

'22년 4분기 또한
고배당주 코스피 아웃퍼폼 가능성

고배당주는 보통 코스피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나, 순이익에 따라 수익률이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22년은 1) '21년에 비해 이익이 감소하나 '17년, '18년처럼 급락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현금 자체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 주가지수 하락으로 배당수익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점들로 미뤄봤을 때 '22년 4분기 또한 고배당주의 코스피 아웃퍼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칼럼의 재해석

김지원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와 여행자보험 (Wall Street Journal)

여행자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여행심리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며 여행자보험은 보험사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했다.

그러나 수요 증가가 글로벌 보험사들에게 마냥 호재는 아니다. 여행자보험 판매에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안전함을 추구하며 관련 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될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로 인한 체류 비용, 대체 항공료와 숙박비가 필요한데, 여행자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이 다양할수록 수요가 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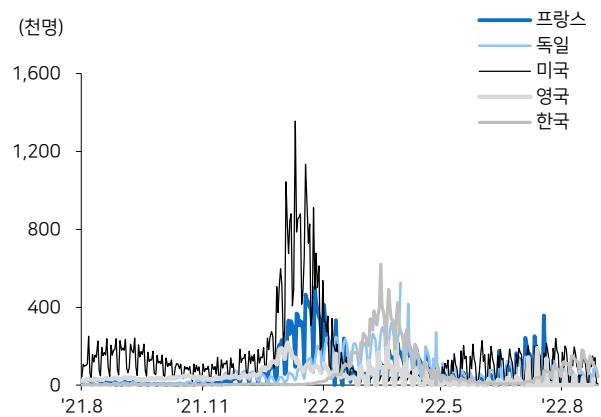
여행자보험이 보험사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품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항공편 부족으로 고객들의 클레임 비용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력 감축을 단행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현재는 오히려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높아진 연료비와 근로자 임금 상승에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인상하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커버해야 하는 금액도 상승했다. 여기에 국가별 규제 이슈와 안전 조치 등까지 반영하면 더 높아지게 된다. 셋째, 여행자보험 가입 연령층의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가입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험금 청구 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볼 때 보험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성이 있다.

여행자보험 수요 증가세 진행 중

여행심리 회복에 따른
여행자보험 수요 증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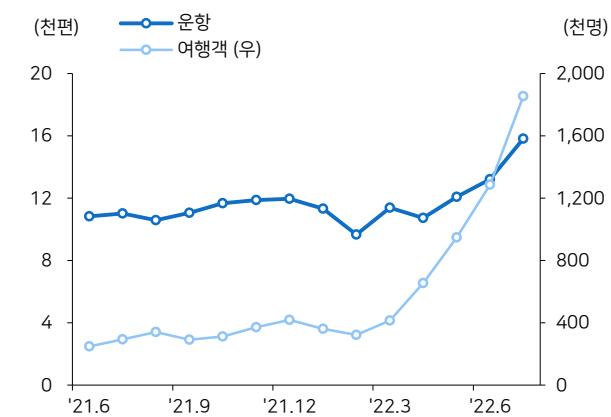
여행자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여행심리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며 여행자보험은 보험사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했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등 변이 출현으로 재확산 이슈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다수 국가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조치 전면 해제 및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며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이다. 여행자보험이 대한 수요 역시 동반 상승하는 중이다.

그림1 국가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OurWorldinDa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여행자보험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유

코로나19 보장 이슈로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딜레마

그러나 이러한 수요 증가가 글로벌 보험사들에게 마냥 호재는 아니다. 여행자보험 판매에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안전함을 추구하며 관련 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될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로 인한 체류 비용, 대체 항공료와 숙박비가 필요한데, 여행자보험의 보장하는 항목이 다양할수록 수요가 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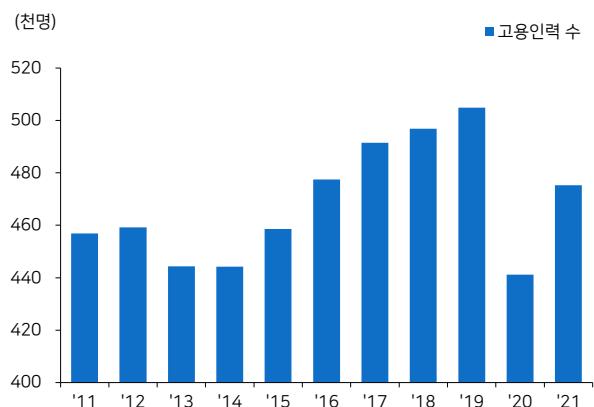
코로나19 보장 관련
가입 및 판매 중단한 보험사 사례

일례로 최근 한국인 여행객 사이에서 스페인 보험 판매대행사인 Heymondo의 코로나19 보험상품이 인기를 끈 바 있다. 해당 상품은 숙박비(1박당 최대 150달러를 최장 15일간 지원)와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한도 제한 없이 실비 보장)까지 지원했다. 해외 확진 시 추가 지출을 우려한 여행객들의 수요가 몰렸지만, 한국의 입국 관리 체계상 입국시 PCR 검사를 요구한다는 점과 올 여름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했던 점으로 손해율 상승을 우려해 지난 7월 21일부로 한국 거주자의 보험 가입을 차단했다. 또다른 사례로 Bupa Group은 코로나19 관련 보장해야 하는 범위가 복잡해져 작년 7월 1일부로 아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여행자보험의 수익성 보장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1:
항공편 부족으로 클레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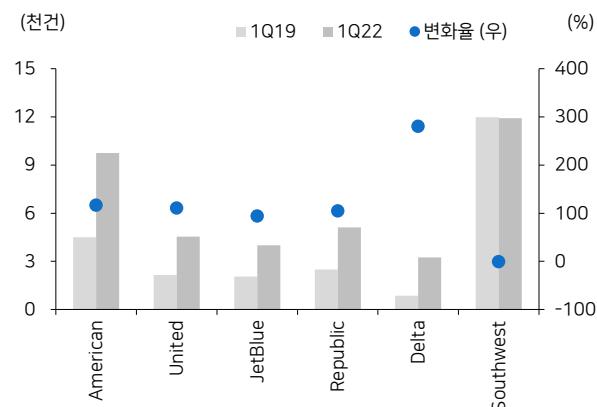
손해율 상승 우려 외에도 여행자보험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품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첫째, 항공편 부족으로 고객들의 클레임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항공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 감축을 단행했지만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운항 취소 및 지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델타 항공은 인력 부족으로 여객기 운항 취소 후 수하물 1,000개를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소비자 불만 건수가 증가할수록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계약자 고객들의 클레임 비용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 유형으로 지연, 취소 등 운항과 수하물 관련 이슈가 꼽힌다.

그림3 미국 항공업계 고용 현황



자료: 미국 교통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미국 항공사별 운항 취소 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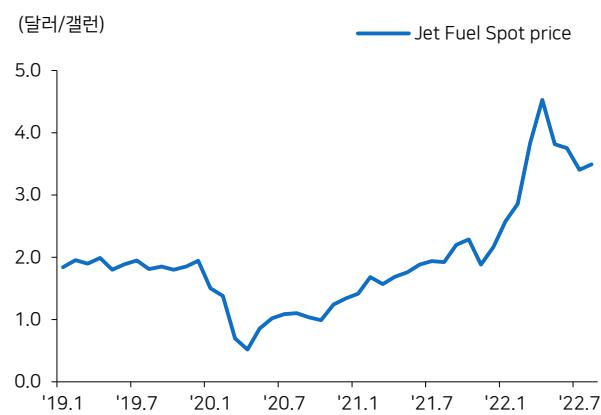


자료: FlightAwar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여행자보험이 수익성 보장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2:
높아진 보장 금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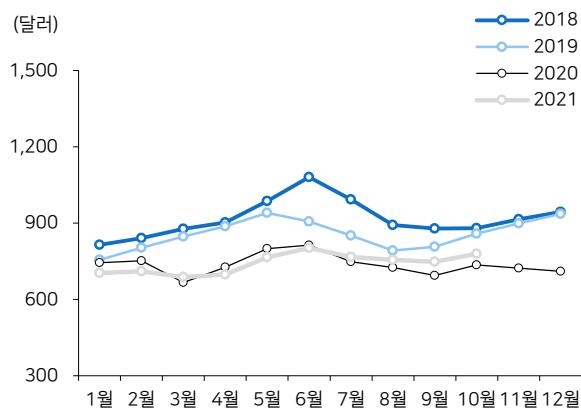
둘째, 항공료 상승으로 보험사들이 보장해야 하는 금액 수준이 코로나 이전대비 높아졌다. 몇몇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은 코로나19 이전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와 근로자 임금 상승에 항공사들이 가격을 인상하며 보험사들이 커버해야 하는 금액도 상승했다. 또한 국가별 규제 사항과 안전 조치 등까지 반영하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림5 Jet Fuel 가격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국제선 왕복기준 항공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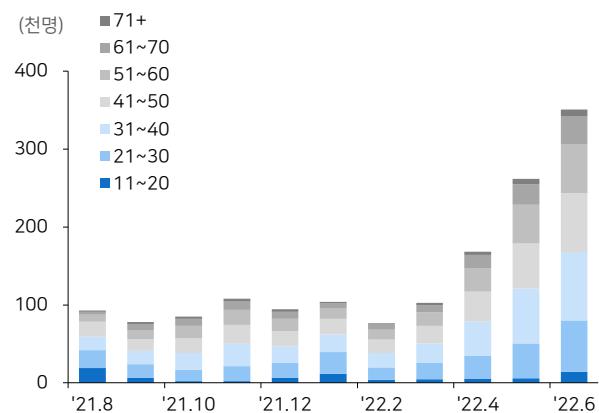


자료: Hopp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여행자보험이 수익성 보장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3:
여행자 연령층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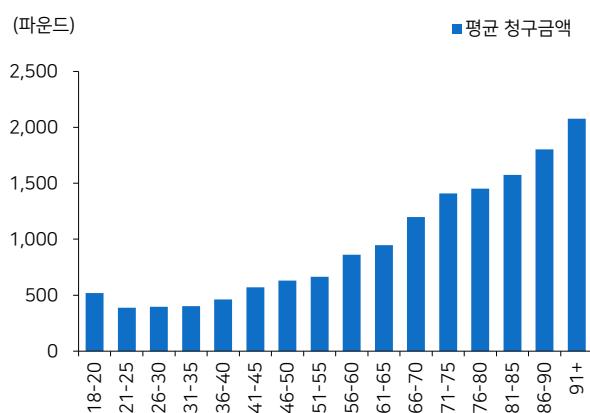
셋째, 주요 여행자 연령층의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여행자보험을 잘 몰랐던 연령층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60대 이상에서 출국자 수 증가세를 보이며 이와 더불어 여행자 보험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볼 때 보험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7 연령대별 출국자 수 추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연령대별 여행자보험 평균 청구금액 (2021년 기준)



자료: AB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오프닝에 따라 보험사들의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 보장범위에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니즈를 충족하는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원문: *Travel Insurance Is Hugely Popular This Year. So Are Claims*